

ONE MINISTRY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Beautiful ONE" 을 꿈꾸는 원 미니스트리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발달장애 사역기관입니다.

"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 32절)

아틀란타에서 차로 8시간정도 올라가면 기독교 관광 명소로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에 위치한 '아크 인카운터'(Ark Encounter)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길이 155m, 폭 26m, 높이 16m)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대한 방주를 만든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약 2400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중 1400명 정도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따라 그 사람의 생애와 특징을 추측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일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Noah)는 히브리어 '누아흐'에서 유래하여 '안식', '위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수고로이 일하는 인류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 지어진 이름입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시작했고, 홍수는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습니다. 노아는 거의 100년동안 방주를 만

들었고, 방주가 완성되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야벳, 함, 셈이 각각 7명, 4명, 5명의 아들을 낳아 노아는 총 16명의 손자를 두었습니다. 야벳은 주로 유럽계 백인, 함은 아프리카 흑인, 셈은 황색 인종의 조상이 되었다고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홍수가 나서 모두 죽고 셋의 후손인 노아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10대손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야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노아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리 늦어도 200살이 넘지 않았을 때 자녀를 낳는데, 노아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한 후에야 자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곧바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와 사역

ONE MINISTRY

사이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시험이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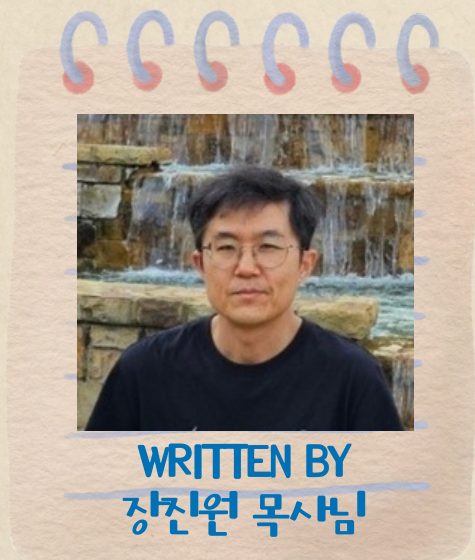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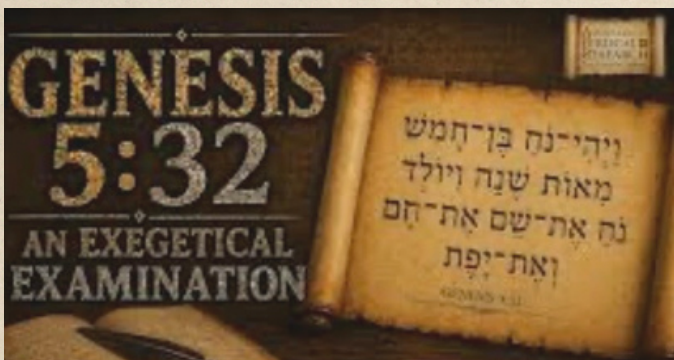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셨는데,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마귀에 의해서 온 나쁘게 끼어든 사건이 아니며, 예수님이 택하거나 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으며,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기전의 필수과정으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는 일과 성장하는 일 사이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위치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겪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그 과정이 힘들기는 해도 그 결과는 유익했습니다.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준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의 태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세례로부터 광야에서의 40일을 통과하여,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준비가 되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노아도 500살이 될때까지 자녀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노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역할로 살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노아처럼 힘든 역할을 맡아서 인내를 하며 살면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험한 역할로 고난당하며 그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에 복이 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내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 가운데 본을 보여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내가 알고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것같이 나를 이웃에게 보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속에 살게 함으로써 나를 빛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어떠한 시험중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원미니스트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WRITTEN BY
장진원 목사님



아이고~ 벗어났네 ㅎㅎ



CASTANETS 연주



목 마르지?



정연이 잘한다~



섬세한 손놀림



너무 맛있겠다~



GROOMING



새로운 간사님과 함께



두뇌 트레이닝



신나는 뽀로로 댄스~~



꽃보다 지우



미래를 위한 저금



같이 보자~



모야와 대화하며 산책중



내가 좀 도와줄게



한글 공부



Mega Block



Coloring



스스로 해보는
네일 아트



풍선 주고 받기



Music Time



Walk Together



see you



봄학기 종강식

CONGRATS



봉사자 표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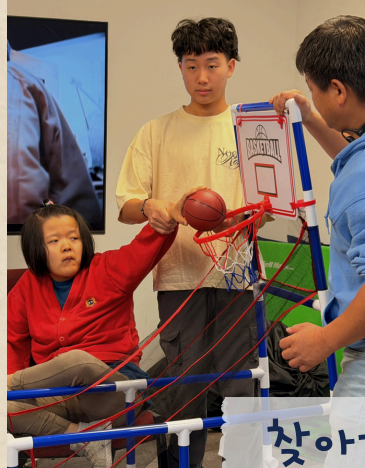
이사장님 축사



목사님 예배



Pinata Game



찾아가는 골대



ONE MINISTRY NEWS



김순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미니스트리 of 새로운 가족으로 인사드리게 된 신임 김순영 간사입니다. 지인분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설렙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한국의 장애아 전담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들마다 마주한 상황과 필요가 모두 달랐기에, 어떻게 다가 가야 할지 조심스럽고 서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함께 부대끼고 눈을 맞추며 보낸 시간은 저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 속에서 오히려 제가 진짜 사랑을 배웠고, 한 사람으로서 깊이 성장할 수 있었던 보물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작년, 남편의 미국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맞아 정든 한국을 떠나 이곳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들스쿨과 하이스쿨에 다니는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저 역시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며 치열하고도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곳 원미니스트리에서 다시 제 소명을 이어가게 되면서, 요즘 문득 한국에 두고 온 첫 제자들의 얼굴이 자주 떠오릅니다. ‘그때 그 꼬맹이들이 지금쯤이면 멋진 성인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소식이 궁금해지며,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멀리서나마 늘 기도하게 됩니다. 첫 제자들을 향했던 그 애뜻하고 따뜻한 초심을 이제 원미니스트리에서 다시 펼쳐보고자 합니다. 두 아이를 키워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용자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더해 원미니스트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오며 가며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인사와 격려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경청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MINISTRY NEWS

연합한인교회

지난 4월 12일, 조지아 연합한인 교회에서 Food Fair가 열렸습니다.

집에서 만든 조청과 버지니아 땅콩 등을 판매한 수익금 및 개인 후원금을 원미니스트리에 전액 기부해 주셨습니다.



ONE MINISTRY NEWS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Beautiful One"을 꿈꾸는

ONE MINISTRY SUMMER CAMP

7/6-17 월~금 10AM-2PM

장소 : 베다니 감리교회
(144 Whitehead Rd, Sugar Hill,
GA 30518)



SUMMER CAMP

**2026년 Summer Camp Fees(점심 포함)

1. BDI/Family Support Fund: \$80/day
(1주 등록 \$400/2주 등록 \$750)
2. Cash: \$50/day
3. Waiver Fund: \$95/day



CONTRIBUTION



5월 후원자님



Grateful
for all

- 주영광고회 (\$100)
- 양형숙 (\$50)
- Michael Kim (\$500)
[사랑이네 치과]
- Mankay Inc (\$100)
- 곽공옥, 서귀애 (\$1000)
- 섬기는 교회 (\$200)
- 예수소망교회 (\$900)
- Sally 성희 김 (\$2500)
[The Good Management]
- Moya Cooper (\$50)
- 김성락, 정진이 (\$50)
- 채정림 (\$30)
- 최경숙 (\$300)
- 구자은 (\$100)
- 장진원 (\$100)
- 연합한인교회 (\$3196)
- 장응선 (\$100)
- 나성경 (\$50)



센터 확장 이전을 위한 특별 모금

총 모금액: \$ 11,620.50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원미니스트리는 조지아주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으로 기부하신 모든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Check 우편

*Payable to:

ONE Ministry Atlanta, Inc

*Send to: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2. 계좌 입금 (Bank of America)

*Account #: 334061943445

*Routing #: 061000052

3. Zelle Transfer

Send Money with Zelle®

ONE MINISTRY ATLANTA INC.



Zelle®

사용하고 계신 은행이 계좌이체를 위해
Zelle 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
를 통해 간단하게 후원금을 온라인으로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옆 QR Code를 스캔하시거나, Zelle 에서
ONE Ministry Atlanta Inc 를 수취인으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oneministryatlanta@gmail.com

ALL ABOUT ONE MINISTRY

MAIN MISSION

1. 예배 및 선교 사역

* 교회 장애인 부서 개설 및 장애 사역 지원

2. 교육 사역

* 원미니스트리 한글학교: **꿈글학교**

* Summer Camp

* After School Classes

3. 복지 사역

* 발달 장애 성인 데이 프로그램: **두드림**

DIRECTOR: 장진원목사님



Tue-Fri: 9 am-4 pm
Sat: 9 am-2:30 pm



302 Satellite Blvd #129
Suwanee, GA 30024



470-350-1094



info@one-ministry.com



www.one-ministry.org



oneministry.atl